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교과역량 반영 실태 연구*

Su-Hyon Park · Jin-Hwa Lee (Chung-Ang Universi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March 10, 2026

Revised: May 27, 2026

Accepted: July 3, 2026

Park, Su-Hyon (First author)
MA student,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Email: fleshair99@naver.com

Lee, Jin-Hwa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Korea
Tel: +82-2-820-5400
Email: jinhlee@cau.ac.kr

* This work draws upon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ABSTRACT

Park, Su-Hyon and Jin-Hwa Lee. 2026. A study of core competency integration in first-year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under the 2022 Revised English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6, 947-967.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six subject competencies of the 2022 Revised English Curriculum are integrated into Korea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An analytical framework was developed by conceptualizing the six competencies and identifying their sub-components. Using this framework, five Grade 7 English textbooks were analyzed in terms of unit structures, writing tasks, and project tasks. The findings revealed that 'collaborative communication' and 'self-management' competencies were most systematically and consistently embedded within general unit structures through structured learning processes, self/peer evaluations, and QR-code-based self-directed learning tools. Project sections structurally reflected 'creative thinking' competency by incorporating creative outputs and cross-curricular integration. Conversely, 'knowledge and information processing', 'civic', and 'aesthetic-emotional sensitivity' competencies were limited to specific sections; notably, the culture section remained focused on information comprehension rather than deep civic competency. However, writing and project tasks served as core elements to manifest the competencies underrepresented in unit structures. Writing tasks implemented various competencies based on content, including aesthetic-emotional sensitivity through arts appreciation and emotional expression. Project tasks proved to be the most comprehensive domain for integrating all six competencies, actively utilizing data exploration, multimedia, and cross-curricular fus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establishing concrete design standards for balanced competency implementation in future textbook development and emphasizes the need to substantially operate integrated project-based learning in actual classroom settings.

KEYWORDS

2022 Revised English Curriculum, English subject competencies,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competency-based education, textbook analysis

1. 서론

우리나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러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함양 방안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교육부 2022a).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영어과 교과역량과 총론의 핵심역량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였고, 선언적 수준에 그쳤던 교과역량을 목표, 내용 체계, 성취 기준까지 연계하여 구체화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이영아 2023).

그러나 교육과정 문서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학교 현장에서 역량 기반 교육이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역량 및 역량 기반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전히 생소하고 모호한 현 상황에서, 교사나 학생이 복잡하고 방대한 교육과정 문서를 통해 이러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교과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교과서는 교사의 수업 설계 및 학습자의 역량 함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과역량이 교과서에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교육과정과 실제 수업 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여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영어 교과서의 역량 반영 실태를 분석한 선행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처음 도입된 2015 개정 영어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일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장지효 2019, 정혜란, 임희정 2022), 분석 범위가 교과서의 일부 단위이나 과업 등의 특정 요소에 국한되어, 교과서 전반에 걸친 교과역량 구현 양상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2022 개정 영어 교과서가 사용되기 시작한 2025년 이후에도, 디지털 리터리시나 자기주도학습처럼 교과역량의 일부 하위 요소를 분석한 연구(조은영, 유원호 2025)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5종을 대상으로, 여섯 가지 영어과 교과역량의 반영 양상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과서의 단위 구성 체계와 쓰기 및 프로젝트 과업에 교과역량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단위 구성 체계는 고정된 구조틀로서 모든 단원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안에 교과역량 요소들을 반영한다면 교과서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역량 교수 및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학생들은 과업 수행을 통해 실제 역량을 실천하고 함양하게 되는데, 과업의 내용이 단위마다 달라지므로 개별 과업의 교과역량 함양 가능성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llis(2003)의 과업 정의를 기반으로 과업을 추출하고, 이 가운데 모든 교과서에 유사한 방식으로 제시된 쓰기 과업과 프로젝트 과업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과역량은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단위 구성 체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둘째,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과역량은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쓰기 과업과 프로젝트 과업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개별 교과서에 대한 평가 및 비교보다는,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전반의 교과역량 반영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추후 교과서 활용 및 집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영어과 교과역량

교과서의 교과역량 반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량 및 교과역량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역량’ 개념은 본래 산업 및 경영 분야에서 직무 수행 능력과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교육학에서는 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통해 특정 맥락에서 지식과 기술을 넘어 태도, 전략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자원을 동원하여 복잡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OECD 2005). 이러한 관점은 역량을 실제 삶의 맥락에서 발현되는 종합적 수행 능력으로 이해하게 하였고, 이후 각국의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토대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량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그 의미를 확장하였다(오세라 2025).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2022a)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 역량의 정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인 정의만으로는 교수·학습·평가 방안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위 요소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교육부 2022b)는 각 핵심역량의 하위 요소를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총론의 핵심역량은 모두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과역량으로 연계되었으며,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창의적 사고 역량과 심미적 감성 역량이 추가되어 총 여섯 개의 목표 진술문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교육부 2022c). 그러나 교과역량 개념의 명확한 이해를 돕고 수업 활동 선정 및 평가 기준 확립에 실질적 지침이 되는 하위 요소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문서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은 각 역량의 정의와 하위 요소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목표 진술문만 제시되어 있고 그 안에 다양한 하위 요소들이 통합된 형태로 나타나 역량의 구조화가 어렵다.

한편, 학업성취도 평가 개발을 위해 교과역량 개념을 구체화한 시도가 존재한다. 백종호 외(2024)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학업성취도 평가 출제 방안을 연구하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 교과역량의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영어과의 경우, 표준화된 측정이 어려운 자기관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은 평가에서 제외하였고, 협력적 소통 역량은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으로,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정보 수집·분석·활용 능력으로, 공동체 역량은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문화 정체성으로 하위 요소를 구분하였다. 이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과역량 하위 요소와 대부분 중복되지만, 협력적 소통 역량의 경우,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과 비교했을 때 명칭과 정의가 일부 변경되었음에도 하위 요소의 변화가 없어, 2022 개정 영어과 교과역량 개념에 부합하는 하위 요소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창의적 사고 역량과 심미적 감성 역량의 개념 및 하위 요소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 사고 역량의 경우, 영어과 목표 진술문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주요 핵심 요소는 ‘융합적 활용’, ‘비판적 사고’, ‘창의적 표현’이다.

이는 총론의 창의적 사고 역량의 하위 요소인 ‘융합적 사고’, ‘독창성’과 유사하지만, ‘비판적 사고’는 총론에서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하위 요소로 제시되어 있어 영어과 교과역량 개념과 차이가 있다(표 1 참조).

한편,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심미적 감성 역량 관련 진술문에는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 ‘심미적 감수성’, ‘삶의 의미와 가치 발견 및 향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총론의 하위 요소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 역시 여전히 추상적이어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기 어렵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심미적 감성 역량 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한 권희경 외(2020)는 심미적 감성 역량을 “인간이 자아실현을 통해 생산한 문화적 산물과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으로서의 인간의 삶에서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가치와 태도”(p. 82)로 정의하였다. 이것은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는 “자아실현과 관련하여 한 인간의 현재의 삶 또는 일생의 삶이 어떠한 그 과정에서 그들이 겪는 온갖 종류의 감정들을 자신의 것과 같이 느끼며, 이를 통해 인간 일반과 그들의 행위에 대한 너그러움을 갖는 것”이고, ‘문화적 감수성’은 “자아실현, 특히, 진(眞), 선(善), 또는 미(美)의 가치를 우선에 두는 태도”로, 학문적 또는 지적 감수성, 윤리적 감수성, 예술적 감수성이 포함된다(p. 81). 이러한 총론의 개념과 비교하면, 2022 영어과 교육과정의 심미적 감성 역량은 ‘영어로 표현된 다양한 자료와 작품을 통해’라는 맥락으로 한정되며, ‘문화적 감수성’ 대신 ‘심미적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영어과에서의 심미적 감성 역량이란 영어 작품을 통해 인간의 경험이나 삶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과 영어 작품 속 미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태도(‘예술적 감수성’)로 이해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문화 정체성,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등 문화 관련 요소가 총론에서는 심미적 감성 역량에 속하는데, 영어과에서는 공동체 역량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종합하면,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과역량은 목표 진술문 형태로만 제시되어 있어 하위 요소 규정을 통한 개념 구조화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총론의 핵심역량과도 일부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교과역량 개념의 모호성은 교과서 집필 및 학교 수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 역량 기반 교육의 실현을 저해할 수 있다.

표 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역량과 2015 및 2022 개정 영어과 교과역량 개념

핵심 역량	2022 총론		2015 개정 영어과(교육부 2015)		2022 개정 영어과(교육부 2022c)	
	정의 (교육부 2022a)	하위 요소 (교육부 2022b)	교과 역량	정의	하위 요소	교과 역량
자기 관리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	자아정체성 확립, 자신감 획득, 자기 통제 및 절제, 기본 생활 습관 형성, 자신의 감정 조절, 건강관리, 기초학습 능력 및 자기주도학습 능력, 진로 설계 능력, 합리적 경제생활, 여가 선용	자기 관리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	영어에 대한 흥미, 영어 학습 동기, 영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 유지, 학습전략, 자기관리 및 평가	자기 관리
지식 정보 처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한 문제 인식, 지식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의 탐색, 해결 방안의 실행 및 평가, 매체 활용 능력	지식 정보 처리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영어로 표현된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역량	정보 수집·분석 능력, 매체 활용 능력, 정보 윤리	지식 정보 처리
협력적 소통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역량	언어적 표현 능력, 타인 이해 및 존중 능력, 갈등 조정 능력	영어 의사 소통	일상생활 및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역량	영어 이해 능력, 영어 표현 능력	협력적 소통
공동체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역량	시민의식, 준법정신, 질서 의식, 공정성과 정의감, 참여와 책임 의식, 협동과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공동체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여 공동체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배려와 관용, 대인 관계 능력, 문화 정체성,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	공동체
창의적 사고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역량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유추성, 민감성, 개방성, 독립성, 과제집착력, 자발성, 융합적 사고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역량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 문화적 상상력, 타인의 경험 및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 다양한 가치에 대한 존중, 정서적 안정감,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의 추구하고 향유				심미적 감성

2.2. 영어 교과서의 교과역량 반영 실태 연구

교과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한 교과서 분석 연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특히 영어 교과서는 다른 교과에 비해 연구 수가 더 제한적인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 교과역량의 하위 요소 구조화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데다, 사회나 과학 등 일부 교과와 달리 교과서에 관련 역량이 명시되지 않는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장지효(2019)는 2015 개정 초등학교 3·4학년 영어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5종을 분석한 결과, 1종을 제외한 모든 교과서가 교과역량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창의’, ‘인성’, ‘협력’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반면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교과역량을 모두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름, 아이콘, 약자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방식과, 학습 목표, 소재나 글감 속에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혼재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활동은 영어 의사소통 역량과 관련지어 분류되었으며, 자기관리 역량은 학습 계획 수립, 경험 회상, 그림을 통한 흥미 유발, 자기 평가 등의 형태로, 공동체 역량은 듣기 지문이나 이야기 소재, 모둠 역할놀이, 세계 문화 소개 등을 통해 반영되고 있었다.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문화 관련 정보 탐색 및 공유, 다양한 매체 활용 상황을 듣기·읽기 지문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으나, 다른 역량에 비해 비중이 작고 교과서 간 해석 차이가 컸다. 가령, 음성 파일을 듣고 내용 확인하기 활동을 어떤 교과서는 의사소통 역량으로, 다른 교과서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으로 분류하는 등 교과서 집필진 간 교과역량 개념 이해가 상이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과역량 분류 기준틀 마련이 필요하다. 정혜란과 임희정(2022)은 2015 개정 초등학교 5·6학년 영어 교과서 5종과 지도서의 활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토대로 각 교과역량과 관련된 활동 목록을 구축하였다. 가령, ‘단어 의미 알기’ 등의 16개 활동은 의사소통 역량으로,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이해하기’ 등 18개 활동은 자기관리 역량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갖기’ 등 12개 활동은 공동체 역량으로, ‘도서, 학습지 등을 이용한 정보 자료 분석’ 등 5개 활동은 지식정보처리 역량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교과서가 네 가지 교과역량과 관련된 과업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비중이 현저히 낮았으며, 이는 장지효(201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연구는 각 교과역량과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 목록을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실제적인 분류 기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개별 활동의 단순 나열에 그쳐 교과역량 개념을 하위 요소별로 구조화하는 작업은 여전히 미흡하다.

2025년부터 2022 개정 영어 교과서가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면서, 소재, 문화 요소, 읽기 자료 난이도, 쓰기 활동 등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역량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5종을 분석한 조은영과 유원호(2025)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이 연구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영어과 교과역량 중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자기관리 역량의 하위 요소에 해당할 뿐이며, 나머지 네 가지 교과역량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 영어 교과서의 교과역량 반영 정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22 개정 영어과 교과역량 여섯 가지가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영어과 교과역량 분류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교과역량이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교과역량의 개념과 하위 요소를 표 2와 같이 구조화하였다.

표 2. 2022 개정 영어과 교과역량 개념 및 하위 요소

교과역량	정의	하위 요소
자기 관리	영어로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스스로 영어 사용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학습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학습전략을 사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지속하는 역량	영어에 대한 정의적 태도 (흥미, 동기, 자신감)
		학습전략 사용
		학습 관리 능력 (계획, 자기주도학습, 평가)
지식 정보 처리	영어로 표현된 다양한 매체의 디지털 지식정보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검색, 수집, 이해, 분석, 평가 및 활용하는 역량	정보 수집·분석·*활용 능력
		매체 활용 능력
		정보 윤리
협력적 소통	일상생활 및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협력적 태도로 자신의 참여 목적과 상황에 맞게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역량	영어 이해 능력
		영어 표현 능력
		*협력적 태도
공동체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문화 정체성과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 배려와 관용 및 포용 능력을 갖추고 영어를 통해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	문화 정체성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
		*공동체 문제 해결 참여
창의적 사고	영어로 전달되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융합적으로 활용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역량	*융합적 활용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적 표현 능력
심미적 감성	영어로 표현된 다양한 자료와 작품 등을 통해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심미적 감수성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역량	*영어 작품을 통한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
		*영어 작품에 대한 심미적 감수성
		*삶의 가치 발견 및 행복한 삶의 향유

*표시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대비 새롭게 추가한 하위 요소

표 2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도출되었다. 첫째, 교과역량의 정의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문서의 목표 진술문을 역량 정의 기술문 형태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네 가지 교과역량(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의사소통, 공동체)은 큰 틀에서 개념 변화가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하위 요소를 수용하되,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정의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일부 하위 요소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였다. 우선, 지식정보 처리

역량에는 백종호 외(2024)의 2022 영어과 평가틀을 참고하여 ‘정보 활용 능력’을 추가하였다. 협력적 소통 역량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명칭 변경 취지를 반영하여 ‘협력적 태도’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동체 역량의 하위 요소였던 ‘배려와 관용’, ‘대인 관계 능력’과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공동체 역량에서는 해당 두 요소를 제외하였다. 그 결과 공동체 역량은 문화 정체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한정되었으며, 이는 백종호 외(2024)의 2022 영어과 평가틀과 일치한다. 다만, 이러한 하위 요소들이 모두 이해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목표 진술문에 제시된 ‘공동체 문제 해결 참여’를 하위 요소로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혜란과 임희정(2022)에서 공동체 역량으로 분류되었던 짝 활동 및 모둠 활동을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창의적 사고 역량과 심미적 감성 역량은 총론의 핵심역량 하위 요소를 참조하면서 영어과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목표 진술문을 기반으로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창의적 사고 역량은 ‘융합적 활용’, ‘비판적 사고’, ‘창의적 표현 능력’으로, 심미적 감성 역량은 총론의 개념보다 범위를 좁혀 ‘영어 작품을 통한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 ‘영어 작품에 대한 심미적 감수성’, ‘삶의 가치 발견 및 행복한 삶의 향유’로 구조화하였다.

표 2의 분류틀이 실제 교과서 분석에 적절히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과서 1종을 대상으로 단원 구성 체계, 쓰기 및 프로젝트 과업의 교과역량을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하위 요소의 구분이 모호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QR코드를 통해 제공되는 동영상 시청한 뒤 이해 확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해 활동 자체는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볼 수 있으나, QR코드를 통한 자료 제공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자기관리 역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습자가 과업 수행을 위해 직접 자료를 검색, 분석, 활용하는 경우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으로 분류하였다.

3.2. 분석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10종 가운데 점유율이 높은 5종의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편의상 A부터 E로 명명하였다. 표 2의 교과역량 분류표를 토대로 5종의 교과서에 나타난 교과역량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교과서의 고정 요소인 단원 구성 체계와 가변 요소인 단원별 쓰기 및 프로젝트 과업,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각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계를 추출하였다. 먼저 모든 교과서의 첫머리에 제시된 단원 구성 및 특징 소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계 의도와 구성 요소를 파악하였으며, 이후 각 단원을 순차적으로 살펴봄에 추가적인 구성 요소를 확인하였다. 5종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계는 명칭과 순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유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단원 구성 요소를 도입, 듣기·말하기, 읽기, 문화, 문법, 쓰기, 프로젝트, 단원 마무리, 8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로 나타나는 고정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이후 표 2의 분류표를 기준으로 각 영역의 고정 요소와 관련이 있는 교과역량을 코딩하였다. 가령, 단원 도입부에서 학습 요소를 개관하거나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자기관리 역량으로, 시각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짚고 논의하는 활동은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코딩하였다. 하나의 요소가 복수의 교과역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표시하였다. 코딩 결과는 빈도수가 아니라 교과역량 관련 요소의 유무로 정리하였다.

둘째, 각 교과서의 단원별 과업을 추출하였다. Ellis(2003)의 과업 정의를 적용하여, 학습 절차(task-as-work plan)가 존재하고, 의미가 중심이 되며, 인지적 과정을 수반하면서, 실생활과 관련이 있고, 명확한 결과물이 도출되는 활동을 과업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단순 연습이나 확인 활동, 게임 활동, 결과물이 없는 대화 활동, 구체적인 절차 없이 활동 제안만 제시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또한 듣기·말하기 영역의 말하기 과업은 교과서마다 대화형, 게임형, 발표형이 혼재되어 있어 교과서 간 비교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일부 교과서에만 나타나는 읽기 후 과업, 문화 관련 과업, Special Lesson 과업 역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모든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각 단원의 쓰기 과업과 프로젝트 과업이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교과서별 과업 수를 살펴보면, B, C, E 교과서는 8개 단원에 걸쳐 8개의 쓰기 과업과 8개의 프로젝트 과업을, D 교과서는 마지막 단원을 Special Lesson으로 구성하여 쓰기 과업 7개, 프로젝트 과업 7개를, A 교과서는 짝수 단원에만 프로젝트 과업을 배치하여 쓰기 과업 8개, 프로젝트 과업 4개를 제시하고 있었다.

도출한 과업들을 전수 조사하면서 관련된 모든 교과역량을 코딩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1의 프로젝트 과업의 경우, 그림을 감상하면서 심미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심미적 감성 역량과 관련이 있고,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 역량과도 연결된다. 미술 교과와의 융합, 그림 속 인물의 관점 상상하여 말하기, 자유로운 오디오 가이드 내용 구성 등은 창의적 사고 역량, 오디오 가이드라는 매체의 활용은 지식정보처리 역량, 모둠으로 오디오 가이드를 제작하고 공유하며 결과물을 평가하는 활동은 협력적 소통 역량, 과업 수행 후 모둠원과 오디오 가이드를 완성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활동은 자기관리 역량과 관련이 있다.

Express Our Thoughts

Team Project

Step 1 Plan 107쪽에서 같은 그림을 고른 세 명이 한 모둠이 되어 그림에서 하나의 대상을 골라 그의 관점에서 질문에 답해 봅시다.

What am "I" doing?	What do "I" think?
I am _____.	I think _____.

그림에서 대상이 하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고,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유롭게 상상하여 써 보세요.

Step 2 Create 위에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디오 가이드를 만들어 봅시다.

Ssireum
by Kim Hongdo

Hi! Nice to meet you. In this painting, two people are competing in ssireum in the middle. Many people are watching them. I'm also in this painting. I'm selling yeot, but people are not buying it. I think people don't want to eat yeot. Can you find me?

Step 3 Share 모둠에서 만든 오디오 가이드를 공유하고, 각 그림에서 화자를 찾아봅시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 봅시다.

- 흥미로운 화자를 주인공으로 한 오디오 가이드 _____
- 실감 나게 녹음한 오디오 가이드 _____

모둠원과 협력하여 오디오 가이드를 만들 수 있어요. (1) (2) (3)

그림 1. 프로젝트 과업 예시(E 교과서)

따라서 그림 1의 프로젝트 과업은 여섯 개의 교과역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교과서마다 과업 수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교과역량의 출현 빈도는 전체 과업 수 대비 비율로 산출하였다.

셋째, 교과역량 코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명의 연구자가 모든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계와 과업을 독립적으로 분석한 후 결과를 대조하였다. 단원 구성 체계 분석에서는 100%의 일치율을 보였으며, 쓰기 과업 분석은 92.5%, 프로젝트 과업 분석은 90.7%의 일치율을 나타냈다. 과업 분석의 불일치는 주로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해석에서 발생하였다. 한 연구자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하위 요소인 매체 활용 능력을 자료 검색, 동영상 촬영, 온라인 게시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으로 한정한 반면, 다른 연구자는 그래프, 포스터, 만화, 박람회 게시물 등 실제적인 비디지털 매체 활용까지 포괄하여 해석하였다. 프로젝트 과업에서는 타 교과 연계를 창의적 사고 역량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디지털 매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 활용을 지식정보처리 역량으로 포함하고, 타 교과 연계는 융합적 사고를 촉진하는 활동으로 보아 창의적 사고 역량으로 분석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밖의 불일치 항목도 심층 논의를 통해 모두 조정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영어 교과서 단원 구성 체계의 교과역량 반영

표 3은 각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계의 고정 요소들이 교과역량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나타낸 것이다. 첫째, 단원 도입부에서는 자기관리 역량과 관련된 요소가 가장 두드러졌다. 모든 교과서는 해당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소재, 의사소통 표현, 언어 형식, 영역별 활동 등)을 ‘Study Points’, ‘Language Input’, ‘My Learning Goals’ 등의 명칭으로 학습자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학습자가 후속 전개될 학습 내용 및 활동을 사전에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자기관리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종의 교과서(C, D, E)는 단원 학습 내용의 단순 제시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알고 있는 것, 관심 있는 것, 배우고 싶은 것 등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흥미와 동기를 진작하고 학습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4종의 교과서(B, C, D, E)는 QR코드를 통해 단원 주제와 관련된 동영상, 어휘, 활동 안내 등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단원 도입부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또 다른 요소는 삽화나 사진을 활용하여 단원의 주제나 자신의 경험에 관해 이야기하는 활동(‘Before You Begin’, ‘Warm Up’)으로, 이해와 표현 활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협력적 소통 역량과 관련이 있다. 다만, 이는 본격적인 협력적 소통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흥미 진작 및 배경지식 활성화를 통해 자기관리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표 3. 교과서 단위 구성 체계에 나타난 영어과 교과역량

교과서	교과역량	단원의 도입부	듣기·말하기	읽기	문화*	문법	쓰기	프로젝트	단원 마무리
A	협력적 소통	그림/영상 보고 대화하기	이해&표현 활동, 짝/모둠 활동	이해&표현 활동, 짝/모둠 활동	이해 활동	이해&표현 활동	이해&표현 활동	이해&표현 활동, 짝/모둠 활동	이해&표현 활동
	자기관리	학습 내용 제시	QR 자료 제공, 자기평가, 전략 제시	QR 자료 제공			자기평가, 전략 제시	그룹평가	QR 자료 제공, 자기평가
	지식정보처리				자료 조사				
	공동체				문화 이해				
	창의적 사고			자신과 연결 질문, 응용/확장 활동				창의적 산출	
B	협력적 소통	그림/영상 보고 대화하기	이해&표현 활동, 짝/모둠 활동	이해&표현 활동, 짝/모둠 활동		이해&표현 활동, 짝/모둠 활동	이해&표현 활동	이해&표현 활동, 짝/모둠 활동	이해&표현 활동
	자기관리	학습 내용 제시, QR 자료 제공	QR 자료 제공, 자기평가	QR 자료 제공, 전략 제시		QR 자료 제공	동료피드백&자기평가	QR 자료 제공	QR 자료 제공, 자기평가
	지식정보처리								
	공동체							문화 이해	
	창의적 사고			자신과 연결 질문, 응용/확장 활동				창의적 산출	
C	협력적 소통	그림/영상 보고 대화하기	이해&표현 활동, 짝/모둠 활동	이해&표현 활동, 짝/모둠 활동	이해 활동	이해&표현 활동, 짝/모둠 활동	이해&표현 활동	이해&표현 활동, 짝/모둠 활동	이해&표현 활동
	자기관리	학습 내용 제시, 관심 내용 선택, QR 자료 제공	QR 자료 제공, 자기평가, 전략 제시	QR 자료 제공, 전략 제시		QR 자료 제공	자기평가	그룹평가	QR 자료 제공, 자기평가, 보충 학습 안내
	지식정보처리				자료 조사				
	공동체				문화 이해				

	창의적 사고		응용/확장 활동					창의적 산출, 타 교과 융합	
	심미적 감성								
D	협력적 소통	그림/영상 보고 대화하기	이해&표현 활동, 작/모듬 활동	이해&표현 활동, 작/모듬 활동	이해 활동	이해&표현 활동, 작/모듬 활동	이해&표현 활동	이해&표현 활동, 작/모듬 활동	이해&표현 활동
	자기관리	학습 내용 제시, 사전 지식 진단, 학습 목표 수립, QR 자료 제공	QR 자료 제공, 자기평가, 전략 제시	QR 자료 제공, 전략 제시, 읽기속도 기록	QR 자료 제공		동료평가, 전략 제시	그룹평가	QR 자료 제공, 자기평가, 보충 학습 안내
	지식정보처리				자료 조사				
	공동체				문화 이해				
	창의적 사고				자신과 연결 질문, 응용/확장 활동			창의적 산출, 타 교과 융합	
	심미적 감성								
E	협력적 소통	그림/영상 보고 대화하기	이해&표현 활동, 작/모듬 활동	이해&표현 활동, 작/모듬 활동	이해&표현 활동	이해&표현 활동, 작/모듬 활동	이해&표현 활동	이해&표현 활동, 작/모듬 활동	이해&표현 활동
	자기관리	학습 내용 제시, 관심 내용 선택	QR 자료 제공, 자기평가, 전략 제시	QR 자료 제공, 전략 제시	QR 자료 제공		자기평가, 전략 제시	QR 자료 제공, 자기평가	QR 자료 제공, 자기평가
	지식정보처리				자료 조사				
	공동체				문화 이해				
	창의적 사고				자신과 연결 질문, 응용/확장 활동			창의적 산출, 타 교과 융합	
	심미적 감성								

*B 교과서는 별도의 문화 섹션을 두지 않고 단원 말 프로젝트 섹션(Culture Project)에 통합함.

둘째, 듣기·말하기 영역의 목적은 학습자가 단원의 학습 목표로 선정된 2~3개의 의사소통 기능 표현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짝이나 모둠과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는 협력적 소통 역량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모든 교과서는 시청각 자료를 청취하거나 시청한 후 이해도를 확인하는 활동을 제시하여 의사소통 기능 표현 및 주요 단어를 익히게 하였고, 이를 주어진 자료나 예시 대화문을 활용하여 짝과 연습하는 대화 활동을 제공하였다. 최종 단계에서는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짝 혹은 모둠원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발표하는 과업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듣기·말하기 영역의 구성은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도 유사하지만, 2022 개정 영어 교과서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이 4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서 ‘이해(reception)’와 ‘표현(production)’으로 재편되면서 다중매체 방식의 ‘보기(viewing)’와 ‘제시하기(presenting)’ 활동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보기 활동과 관련하여, 모든 교과서가 동영상 자료와 시각 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E 교과서는 별도의 섹션(‘Understand Visuals’)을 구성하여 온라인 프로필, 인포그래픽, 포스터 등 실생활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연습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제시하기 활동 측면에서는 모든 교과서가 대화 중심의 말하기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발표하기 활동(‘Presentation Time’, ‘Speak Up’, ‘One-minute Speech’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협력적 소통 역량과 관련하여 영어 이해와 표현 방식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개발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자기관리 역량과 관련된 요소도 모든 교과서의 듣기·말하기 영역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모든 교과서가 QR코드를 통해 듣기 음원이나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스스로 듣기 및 보기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으며, 영역 마지막 부분에 ‘Self-Check’을 배치하여 학습에 대한 자기평가를 시행하게 하였다. 자기관리 역량의 하위 요소인 ‘전략’의 경우, 3종의 교과서(A, C, D)는 매 단원에 듣기 전략과 말하기 전략을 하나씩 제시하고 있었고, E 교과서는 차별화하여 말하기 전략 대신 보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셋째, 읽기 영역에서도 협력적 소통 역량이 가장 두드러졌다. 모든 교과서는 읽기 중 및 읽기 후 단계에서 지문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글이나 말로 정리하여 표현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읽기 전이나 읽기 후 단계에서 짝 혹은 모둠 활동을 요구하였다. 자기관리 역량과 관련된 요소도 다양하게 발견되었는데,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교과서가 지문을 낭독한 오디오 파일을 QR코드를 통해 제공하였고, 4종의 교과서(A, B, C, D)는 추가로 지문의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을 제공하였다. 그밖에 B 교과서는 단어장과 지문 관련 추가 정보 동영상, C 교과서는 읽기 게임과 Graphic Organizer 활동지, D 교과서는 Read Aloud 측정 도구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또한, 4종의 교과서(B, C, D, E)는 읽기 전략을 규칙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특히 D, E 교과서는 전략의 단순 제시에 그치지 않고 이를 연습하는 활동을 읽기 전 단계에 포함하여 적극적인 전략 학습을 유도하였다. 한편 읽기 영역에서는 창의적 사고 역량과 관련된 요소가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4종의 교과서(A, B, D, E)는 읽기 단계에서 지문의 내용을 자신과 연결 지어 생각하거나 비판, 평가, 확장하는 질문을 ‘Link to the Big Question’, ‘What About You?’, ‘Think About This’, ‘Think and Talk’ 등의 명칭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모든 교과서는 읽기 후 단계에서 읽기 지문의 내용을 응용하거나 확장한 활동을 포함하였는데, 대부분의 교과서가 ‘After You Read’ 섹션의 마지막에 ‘Make Connections’, ‘Reading Project’, ‘Think More’ 등의 이름으로 간략히 제시한 반면, D 교과서는 ‘After We Read’에서는 지문 이해 활동만 다루고 ‘Beyond

Reading'이라는 별도의 섹션을 두어 단계별로 지문과 관련된 창의적인 과업(예: 자기소개 카드 만들기, 동아리 홍보 포스터 만들기 등)을 수행하게 하였다.

넷째, 문화 영역과 관련하여 교과서 B의 경우, 단원 구성 체계의 일부로 문화 섹션을 설정하는 대신 단원 마지막 프로젝트의 명칭을 'Culture Project'로 명명하고 그 일부로 문화를 다루고 있어 문화 영역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문화 영역은 속성상 공동체 역량과 가장 관련이 깊은데, 실제로 분석 대상 교과서 모두가 타 언어 및 문화를 소개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과서는 반 페이지 미만의 분량으로 특정 문화 항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이해 활동(정보 연결하기, 빈칸 채우기 등)을 제시하는 데 그쳐, 심도 있는 공동체 역량 함양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협력적 소통 역량 측면에서도 제한적이었다. 다만 E 교과서는 한 페이지 전체를 문화 섹션에 할애하여 풍부한 정보와 실제적인 과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심층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모든 교과서가 정보 검색 활동을 제안하고 있었으나, 필수적인 요소라기보다 아이콘이나 소형 활자로 추가 활동처럼 제시하고 있어 본격적인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기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밖에, D와 E 교과서는 QR코드를 통해 동영상 및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자기관리 역량 함양에 기여하고 있었다.

다섯째, 문법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모든 교과서는 이전의 듣기·말하기, 읽기 영역에서 등장한 언어 형식 몇 가지를 목표로 삼아 예문 중심으로 구문을 제시하고, 발견 학습을 유도하거나 관련 설명을 제공한 후 빈칸 채우기와 같은 연습 활동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에 더하여 4종의 교과서(B, C, D, E)는 'Play Time/Play Online', 'Now You Can', 'Play with Language', 'Have a Fun Together' 등의 명칭으로 짝 혹은 모둠으로 게임이나 과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협력적 소통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종의 교과서(B, C)는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도록 문법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이나 자료, 게임을 QR코드를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

여섯째, 쓰기 영역 역시 모든 교과서가 계획, 쓰기, 공유의 단계로 유사한 구성을 보였는데, 이는 과정 중심 쓰기 교수법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예시글을 보며 구조나 내용 등을 파악하는 이해 활동과 직접 쓰고 수정하는 표현 활동이 수반되었으나 대부분 개인 활동으로 이루어져 협력적 태도를 기르기에는 미흡하였다. 또한 모든 교과서는 쓰기 영역의 마지막에 자기평가나 동료평가 장치를 두어 자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3종의 교과서(A, D, E)는 추가적으로 쓰기 전략을 규칙적으로 제공하였다.

일곱째, 단원 말미에 제시되는 프로젝트에서는 앞서 학습한 내용, 의사소통 기능, 언어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최고 수준의 표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 짝이나 모둠 활동으로 진행되므로 협력적 소통 역량 증진과 깊은 관련이 있다. 프로젝트 영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역량은 창의적 사고 역량으로, 이는 각 교과서 서두의 단원 구성 체계 설명문에 명시되어 있었다. 가령 A 교과서는 'Team Project' 영역을 소개하면서 "단원 주제와 관련된 모둠 활동을 통해 영어 활용 능력과 창의력, 협동심, 문제 해결 능력을 기릅니다"(p. 9)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 프로젝트 영역의 하위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계획하기, 생성하기, 공유하기 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때 두 번째 단계의 명칭을 'Create'라고 명명한 교과서가 4종(A, B, C, E)에 달했다. 또한, 3종의 교과서(C, D, E)는 각 프로젝트에 대하여 타 교과 연계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었으며, 이는 타 교과와의 융합적 사고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창의적 사고 역량과 연결된다. 자기관리 역량과 관련된 요소도 모든 교과서에서 발견되었다. 4종의 교과서(A, C, D, E)는 프로젝트 과업 말미에 자기평거나 그룹평가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2종의 교과서(B, E)는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이나 과업 템플릿을 제공함으로써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였다. 한편, B 교과서는 프로젝트 영역의 제목을 ‘Culture Project’라고 명명하고 설계 의도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관련 프로젝트 활동을 하며 사고를 확장해요.”(p. 5)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문화 섹션을 별도로 두지 않은 대신 프로젝트 내에서 공동체 역량을 통합적으로 다루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지식정보처리 역량 측면에서는 일부 과업에서 자료 검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매 단원 고정적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자료 조사를 명시한 교과서는 없었다.

여덟째, 모든 교과서는 단원의 끝에 ‘Lesson Review’, ‘Check Up’, ‘Wrap Up’ 등의 명칭으로 전체 단원을 복습하고 학습 정도를 평가하는 섹션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 영역은 속성상 자기관리 역량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다. 모든 교과서는 단원에서 다루었던 주요 학습 요소에 대한 간단한 문항과 QR코드로 듣기 문항 음원을 제공하여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성취 수준을 진단하게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이해 및 표현 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더 나아가 단원의 전체 목표 달성도나 학습 과정 전반을 성찰하는 요소도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 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후속·추가 학습을 안내하거나 수준별 자료를 제공하는 교과서는 2종(C, D)에 불과하였다. C 교과서는 문제 풀이 방식(개인 혹은 짝 활동)과 시도 횟수(첫 번째, 두 번째)를 표시하게 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관련 페이지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D 교과서는 확인 문제와 도전 문제를 분리하여 제시하고 QR코드를 통해 추가 수준별 보충/심화 문항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였다.

요약하면, 2022 개정 영어 교과서 5종의 단원 구성 체계는 협력적 소통 역량과 자기관리 역량을 전 영역에 걸쳐 가장 유기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협력적 소통 역량은 ‘이해 및 표현’ 활동을 기반으로 짝이나 모둠 활동, 게임 활동 등을 통해 ‘협력적 태도’를 배양하도록 하였고, 특히 교육과정 개정에 발맞추어 ‘보기’와 ‘제시하기’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의사소통 방식의 다각화를 꾀하였다. 자기관리 역량은 도입부에서 단원 개관 및 학습 계획 수립,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 학습전략 제공, 전 영역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및 자기·동료평가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었다. 반면, 나머지 교과역량들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거나 단원 구성 체계 내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창의적 사고 역량은 읽기 영역의 심화 질문과 프로젝트 영역의 창의적 과업에 반영되어 ‘비판적 사고’ 및 ‘융합적 활용 및 창의적 표현 능력’을 유도하고 있었다. 공동체 역량의 경우, 문화 영역에서 ‘문화적 다양성 이해 및 포용 능력’을 지향하였으나 분량과 깊이의 한계로 심층적인 함양에는 미흡하였고 ‘공동체 문제 해결’ 요소가 부족하였다. 지식정보처리 역량 역시, 문화 영역에서 단편적이고 부차적인 정보 검색 제안에 그쳐 ‘정보 수집·분석·활용 능력’이나 ‘정보 윤리’ 능력을 견인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마지막으로, 심미적 감성 역량의 경우 ‘영어 작품을 통한 공감’이나 ‘감수성’ 등을 자극하는 요소가 단원 구성 체계 내에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구현 정도가 가장 미미하였다.

4.2. 영어 교과서 쓰기 과업과 프로젝트 과업의 교과역량 반영

교과역량 함양은 실제 활동 및 수행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과서의 과업 안에 교과역량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표 4와 그림 2는 각 교과서의 쓰기 과업에 나타난 교과역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협력적 소통 역량과 자기관리 역량은 모든 교과서의 모든 쓰기 과업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들은 앞서 단위 구성 체계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고정 요소를 통해 구조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모든 쓰기 과업은 이해 및 표현 활동을 수반하고 있었고, 수행 후에는 내용이나 형식 등을 스스로 혹은 짝과 함께 점검하도록 구성되었다.

표 4. 교과서 쓰기 과업에 나타난 영어과 교과역량

교과역량	교과서 A(%) n=8	교과서 B(%) n=8	교과서 C(%) n=8	교과서 D(%) n=7	교과서 E(%) n=8
협력적 소통	8 (100.0)	8 (100.0)	8 (100.0)	7 (100.0)	8 (100.0)
자기관리	8 (100.0)	8 (100.0)	8 (100.0)	7 (100.0)	8 (100.0)
지식정보처리	3 (37.5)	0 (0.0)	1 (12.5)	1 (14.3)	2 (25.0)
공동체	4 (50.0)	2 (25.0)	4 (50.0)	1 (14.3)	4 (50.0)
창의적 사고	2 (25.0)	3 (37.5)	1 (12.5)	0 (0.0)	2 (25.0)
심미적 감성	3 (37.5)	3 (37.5)	3 (37.5)	3 (42.9)	3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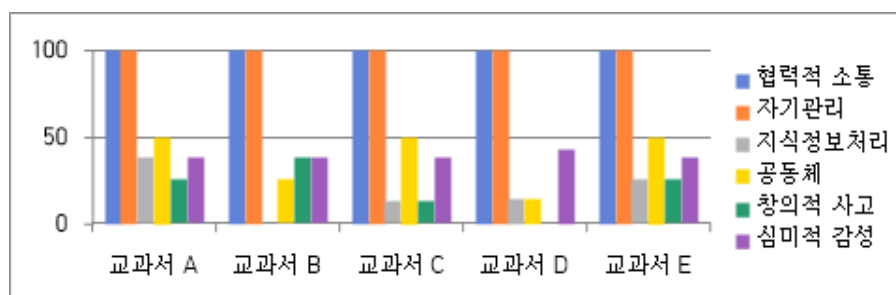


그림 2. 교과서 쓰기 과업에 나타난 영어과 교과역량

한편, 쓰기 과업들은 단위 구성 체계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나머지 교과역량들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우선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교과서에 따라 0~37.5%의 쓰기 과업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A 교과서의 경우 예술 작품을 설명하기 위한 조사 활동, 음식 블로그 작성하기, 인생 그래프 제작 등과 같이 정보를 검색하고 매체를 활용하여 쓰기 과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함양을 도모하였다. C, D, E 교과서 역시 예술 작품이나 동물 조사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E 교과서는 상상 속 학교를 그린 후 이를 시각 자료로 활용하여 작문 및 발표 활동을 하도록 제시하였다. 반면 B 교과서의 쓰기 과업에서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관련 요소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공동체 역량은 14.3~50%의 쓰기 과업에서 나타났다. 각 교과서는 공동체 역량과 관련하여 유사한 소재를 다루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음식 소개(A, C, E 교과서), 예술 작품 소개(A, C, D, E 교과서), 지역 소개(C, D, E 교과서), 우리나라 위인 소개(A 교과서) 등을 통해 자국 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환경 보호(A, B, E

교과서), SNS 포스팅 예절(B 교과서), 건강 관리(C 교과서)와 같은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글 쓰기 과업을 제시하였다.

창의적 사고 역량은 쓰기 과업의 0~37.5%에 반영되어 있었으며, 이는 창의적 표현, 비판적 사고, 융합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였다. A 교과서는 방학 계획 및 안전 수칙 수립하기, 환경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쓰기를 제시하였고, B 교과서는 시 쓰기, 학급 체험 활동 계획 수립하기, 사건 범인 추론하기를 포함하였다. C 교과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 조사 설문지 제작하기, E 교과서는 사물을 통해 자신 표현하기, 상상 속 학교 소개하기를 통해 창의적 사고 역량 함양에 기여하고 있었다. 반면 D 교과서의 쓰기 과업은 창의적 사고 역량과의 관련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적 감성 역량의 경우에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음에도 모든 교과서의 쓰기 과업에 유사한 비율(37.5~42.9%)로 반영되어 있었다.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쓰기 과업 유형은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A, C, D, E 교과서), 독서 감상(A, B, C, D 교과서), 여행 감상(D 교과서), 영화 감상(E 교과서) 등 심미적 감수성과 관련된 활동이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시(B 교과서), 편지(C 교과서), 감사장(E 교과서)으로 표현하기,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나 경험 및 감정 기술하기(A, B 교과서) 등과 같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공감적 이해를 촉진하는 과업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표 5와 그림 3은 각 교과서의 프로젝트 과업에 나타난 교과역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든 프로젝트 과업은 영어에 대한 이해와 표현 활동을 포함하였고 모두 모둠 활동으로 설계되어 협력적 소통 역량 함양에 적합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교과서는 섹션 하단에 ‘Group-check’, ‘Team-check’ 등을 두어 과업 수행에 대하여 성찰하도록 함으로써 자기관리 역량 향상을 도모하였는데, B 교과서만 과업 수행 후 평가 요소를 제시하지 않았다.

표 5. 교과서 프로젝트 과업에 나타난 영어과 교과역량

교과역량	교과서 A(%) n=4	교과서 B(%) n=8	교과서 C(%) n=8	교과서 D(%) n=7	교과서 E(%) n=8
협력적 소통	4 (100.0)	8 (100.0)	8 (100.0)	7 (100.0)	8 (100.0)
자기관리	4 (100.0)	0 (0.0)	8 (100.0)	7 (100.0)	8 (100.0)
지식정보처리	4 (100.0)	8 (100.0)	7 (87.5)	4 (57.1)	7 (87.5)
공동체	3 (75.0)	3 (37.5)	3 (37.5)	2 (28.6)	4 (50.0)
창의적 사고	4 (100.0)	8 (100.0)	8 (100.0)	7 (100.0)	8 (100.0)
심미적 감성	1 (25.0)	2 (25.0)	2 (25.0)	3 (42.9)	3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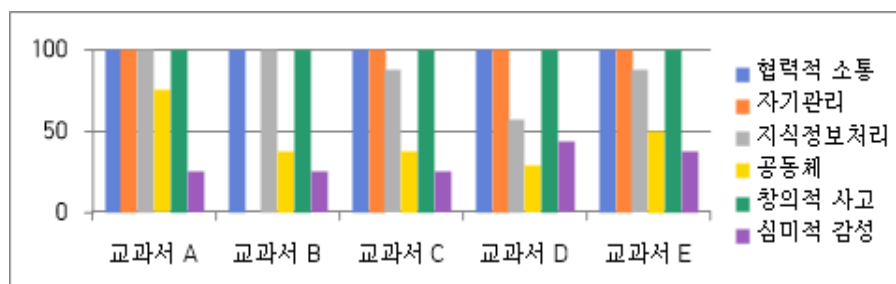


그림 3. 교과서 프로젝트 과업에 나타난 영어과 교과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반영 비율은 57.1~10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관련된 요소는 크게 조사 활동과 매체 활용 활동으로 구분되었다. 각 교과서는 음식 조사, 미래 직업 조사, 지역 축제 조사, 여행지 조사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음식 소개 동영상, 감사 영상, 오디오 가이드, 안전 지도, 소책자, 포스터, 만화, 학급 요리책, 환경 카드 뉴스, 여행 상품 광고지 등 다양한 다중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도록 구성하였다. 과업의 결과물을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 역시 지식정보처리 역량 함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공동체 역량은 프로젝트 과업의 28.6~75.0%에 나타났다. 문화 정체성과 다양성 이해 활동으로는 우리 문화(A 교과서), 우리 동네와 지역(C, D, E 교과서), 음식(A, D, E 교과서), 세계의 유명 도시(B 교과서), 미술 작품(C, E 교과서) 등을 조사하고 소개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공동체 문제 해결 참여 활동으로는 학교 안전 증진(A 교과서), 환경 보호(B, E 교과서), 올바른 SNS 사용 캠페인(B 교과서), 공공의 건강 증진(C 교과서) 등이 있었다.

창의적 사고 역량은 모든 교과서의 프로젝트 과업에 100% 반영되어 있었다. 이는 단원 구성 체계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교과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창의적·융합적 사고 증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C, D, E 교과서는 모든 프로젝트 과업을 타 교과 융합형으로 설계하였는데, 연계 교과는 국어, 수학, 사회, 도덕, 음악, 미술, 보건, 정보, 환경, 진로와 직업, 기술·가정, 창의적 체험활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다. 실제 과업들을 살펴보면 세계 음식을 조합하여 새로운 메뉴 개발하기(A 교과서), 학급에 게시할 긍정 메시지 만들기(B 교과서), 새로운 암호 규칙을 만들어 암호 편지 쓰기(B 교과서), 노래를 개사하여 감사의 마음 표현하기(C 교과서), 학급의 핵심 가치를 담은 동물 마스코트 제작 및 발표하기(D 교과서), 그림 속 인물의 관점에서 오디오 가이드 제작하기(E 교과서) 등과 같이 실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업들이 제공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심미적 감성 역량과 관련된 프로젝트 과업들은 25~37.5%로, 상대적으로 반영도가 낮았다. 도서 및 문학 이야기 감상(C, D 교과서), 영화 및 미술 작품 감상(E 교과서)을 수반하는 과업이 있었으며, 인생의 경험이나 추억 공유(A, D 교과서), 감사의 마음 전달(B, E 교과서), 우정과 긍정의 가치 탐색(B 교과서), 학급 가치 도출(D 교과서)과 같이 심미적 감수성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제고하고 삶의 가치를 성찰하는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인 여섯 가지 교과역량이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단원 구성 체계와 쓰기 및 프로젝트 과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원 구성 체계에서는 협력적 소통 역량과 자기관리 역량이 가장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었다. 이해와 표현 활동을 중심으로 한 학습 과정, 짝 및 모둠 활동, 자기·동료 평가, QR코드를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학습 전략 제시, 단원 성찰 활동 등은 두 역량을 지속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또한 프로젝트 영역은 창의적 산출물 제작과 타 교과 연계를 통해 창의적 사고 역량을 구조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반면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공동체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은 특정 영역이나 활동에 제한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문화 영역은 정보 이해 중심으로 구성되어, 본래의 취지인 공동체 역량을 심층적으로 함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쓰기 과업과 프로젝트 과업은 단원 구성 체계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교과역량을 실제 수행 활동을 통해 구현하는 핵심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쓰기 과업에서는 모든 교과서가 협력적 소통 역량과 자기관리 역량을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었으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지식정보처리 역량,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도 다양하게 구현하고 있었다. 특히 심미적 감성 역량은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독서 감상, 감사 표현, 경험과 감정 표현 등의 과업을 통해 모든 교과서에서 비교적 고르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프로젝트 과업은 여섯 가지 교과역량을 가장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모든 프로젝트는 이해와 표현 활동, 모둠 활동을 바탕으로 협력적 소통 역량을 요구하였으며, 자기·동료·모둠 평가를 통해 자기관리 역량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보 탐색과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해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문화 이해와 공동체 문제 해결, 창의적 산출물 제작, 타 교과 융합 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 역량과 창의적 사고 역량을 폭넓게 구현하고 있었다.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감상과 공감, 가치 성찰을 포함하여 심미적 감성 역량도 함께 함양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이는 프로젝트 과업이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과역량을 통합적으로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적인 장치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과서 개발 시 모든 교과역량이 단원 구성과 과업 수준에서 균형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정보 탐색과 매체 활용을 일회성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학습 과정으로 조직하고, 공동체 역량은 문화 이해를 넘어 실제 사회 문제 해결과 참여를 요구하는 과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로젝트 학습은 여섯 가지 교과역량을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로 확인된 만큼, 실제 학교 현장의 수업에서 프로젝트 과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생산·공유하고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역량을 실제 맥락에서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교과역량이 실제 교실 수업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학생들의 역량 발달로 이어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 대상을 다른 학년까지 확대하여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과역량 구현 양상을 보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15. 『영어과 교육과정』 (*English Curriculum*). 세종: 교육부(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22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General Framework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세종: 교육부(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22b.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중학교』 (*Commentary on the General Framework of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Middle School*). 세종: 교육부(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22c. 『영어과 교육과정』 (*English Curriculum*). 세종: 교육부(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권희경, 김주아, 박경호, 안해정, 최인희, 김명섭 (Kwon, H., J. Kim, K. Park, H. Ahn, I. Choi and M. Kim). 2020. 『2020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 (*2020 KEDI Survey Research on Student Competencies*). 진천: 한국교육개발원(Jinche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백종호, 이광상, 이재봉, 김준식, 양성현, 이정찬, 오택근, 백은진, 이기돈, 김기남, 정찬미, 곽혜정, 이수정, 류수경, 박진희, 주현우, 김아른, 주현욱(Baek, J., K. Lee, J. Lee, J. Kim, S. Yang, J. Lee, T. Oh, E. Baek, G. Lee, G. Kim, C. Jeong, H. Kwak, S. Lee, S. Ryu, J. Park, H. Joo, A. Kim and H. Joo). 2024.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학업성취도 평가 출제 방안 연구』 (*A Study on Item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Under the 2022 Revised Curriculum*). 진천: 한국교육과정평가원(Jincheo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오세라(Oh, S.). 2025.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역량 개념 분석: 구조적 한계와 실질적 구현을 위한 조건(An analysis of the competency concept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Structural limitations and prerequisites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교육과정연구>>(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43(4), 25-51.
- 이영아(Lee, Y.-A.). 2023.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특징과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화 분석(Characteristics of a competency-based English curriculum and changes in 2022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외국어교육연구>>(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37(1), 117-144.
- 장지효(Jang, J.-H.). 2019. 핵심역량 중심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등영어 3·4학년 교과서의 분석(An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English textbooks published under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박사학위논문(Doctoral dissertation), 전남대학교(Chonnam National University).
- 정혜란, 임희정(Chung, H.-R. and H. Ihm). 2022. 2015 개정 영어 교육과정 핵심역량 측면에서의 초등 5·6학년 영어교과서 과제 분석(An analysis of tasks of 5th and 6th grade English textbooks for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in terms of core competency development). <<초등영어교육>>(Primary English Education) 28(2), 127-145.
- 조은영, 유원호(Cho, E. Y. and I. W. Yoo). 2025.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구현: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단위 구성, 디지털 리터러시, 자기주도적 학습 분석(Implementing the 2022 Revised English Curriculum: Unit structure, digital liter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Korea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for seventh graders). <<중등영어교육>>(Secondary English Education) 18(5), 127-156.

Ellis, R. 2003. *Task-Base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DeSeCo Project)*. Paris: OECD Publishing.

[분석 대상 교과서 및 지도서]

*김기택, 김현우, 강민희, 김유경, 최성묵, 서공주, 조래정, 전성호, 조유람(Kim, K.-T., H. Kim, M. Kang, Y. Kim, S. Choi, G. Seo, R. Cho, S. Jeon and Y. Cho). 2024.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능률교과서(Seoul: NE Neungyule).

*소영순, 김지형, 노윤희, 민경은, 박석완, 박현수, 이수민, 이용범, 이지현, 조경진(So, Y.-S., J. Kim, Y. Noh, K. Min, S. Park, H. Park, S. Lee, Y. Lee, J. Lee and K. Cho). 2024.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천재교과서(Seoul: Chunjae Education Inc.).

*윤정미, 유원호, 염미선, 이석영, 손지선, Arthur G. Willers, Thomas J. Thwaite(Yoon, J.-M., W. Yu, M. Yeom, S. Lee, J. Son, A. G. Willers and T. J. Thwaite). 2024.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동아출판(Seoul: Dong-A Publishing).

*이병민, 이상민, Kim Christian, 고미라, 강소진(Lee, B.-M., S. Lee, C. Kim, M. Ko and S. Kang). 2024.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동아출판(Seoul: Dong-A Publishing).

*이상기, 배지영, 안소연, 김하경, 박현민, 양소영, 이정현, 정선희, 한승지(Lee, S.-G., J. Bae, S. Ahn, H. Kim, H. Park, S. Yang, J. Lee, S. Jung and S. Han). 2024.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천재교과서(Seoul: Chunjae Education Inc.).

예시 언어(Examples in): English, Korean

적용 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 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Secondary